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6권 1호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olume 16, Number 1: 91-113, March 2008.

농촌 커뮤니티의 지역별 다양성에 관한 연구
-아산시와 청도군 농촌마을 사례-

김 태 연* · 이 철 우** · 장 동 필***

A Study on the Regional Diversity of Rural Communities : a Comparative Study on Two Rural Communities

Kim, Tae-Yeon · Lee, Chul-Woo · Chang, Dong-Phil

This study ultimately aims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s for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carried out field surveys for two rural villages and tried to find out the current institutional situation of rural villages. Reviewing conceptual debates on rural, village, community and organisation theory, it sets up a typology of four groups as follows: voluntary expressive group, involuntary expressive group, voluntary instrumental group, and involuntary instrumental group. Based on this typology, this study conducted field surveys for two rural villages; Pyeongchon-Ri in Chungnam and Noolmi-Ri in Kyoungbuk. From the analysis on the field surveys, it finds some features on Korean rural groups. First, the residents in rural villages have very strong identity for their living areas. Second, the number of rural groups are tend to decrease recently. Third, the actions of instrumental groups are determined by the organisations operating nearby. Fourth, the function of groups within rural villages only carry out some village festivals, but other friendly relationship among rural residents are expanded out to wider areas called Myeon.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recognize the diversity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and deals with them in different ways of public policies.

Key words : *rural community, organizational theory, expressive and instrumental group*

* 대표저자,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석사과정

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면적도 감소하고 농촌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전 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주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자의 감소에 따라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기존 농촌마을에서 행해져왔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극단적으로는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적 조직인 마을주민조직의 해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농촌 커뮤니티의 위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실체 파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각 지역이 직면한 문제의 내용과 심각한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농촌지역문제의 차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의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EU, 1988)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농촌의 지역별 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농촌지역이 유형별·지역별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과거 마을단위로 존재했던 커뮤니티가 현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농촌지역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 커뮤니티의 존재 양태에 관한 연구는 농업 또는 농촌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은 주로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책지원의 대상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거나 사후에 평가하는 등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내생적 지역발전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책의 실행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책의 지원대상(Target Group)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정책지원 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정책 또는 농촌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개별농가보다는 커뮤니티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지역 커뮤니티의 존재 양태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현재 농촌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 중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마을(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과 일반 농업이 행해지는 마을(경북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지역별 또는 유형별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Ⅱ. 농촌 커뮤니티 관련 개념 고찰

1. 농촌의 개념

농촌의 기능적 가치나 사회적·공간적 위치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최근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농촌의 다양성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일률적 개념규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내지는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도시가 좁은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곳인 반면 농촌은 대체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며, 도시가 주로 2, 3차 산업활동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반면, 농촌은 주로 1차 산업 즉,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는 경제활동, 사회계층 등에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동질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와 읍·동은 도시로, 군과 면은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시는 행정적으로 시로 분류되는 지역사회로서 인구수가 5만 명 이상이고 시가지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및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60% 이상이어야 하며,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지역'으로 농촌의 개념을 설정한다. 즉, 도시지역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농촌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인위적인 가변성을 갖게 된다. 또한 1995년 이후 도농복합형시가 생기면서 시와 군을 도시와 농촌으로 부르는 기존 법적 개념에 혼선이 생기면서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초래된 것도 농촌을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지 않고 단순히 나머지 지역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개념에서 탈피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하게 농촌지역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을 구성하는 공동체 단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마을의 개념

농촌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농촌은 면부 지역을 지칭하고 이를 구성하는 리단위를 기본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마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현재까지 마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행정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 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행정리로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마을 개념을 다루고 있는 몇 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혜민(2006)은 전통테마마을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마을이라는 공간적인 범위를 단위로 해서 사업추진의 성과와 사업에 따른 마을의 변화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편, 농촌마을의 빈집·빈터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강구 외(2007)의 연구에서는 22개의 농촌마을 사례지역을 도시근교, 평야부, 중산간, 어촌, 수도권 등의 지형과 소재지 인근, 중간평야, 중산간 주변부 등의 입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행정리별로 기본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가설에 의해 행정리를 그 기본 범위로 해서 입지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정화(2007)는 지역의 개념이 행정단위를 기본으로 하기 보다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그 경계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농어촌 지역을 행정단위로 구분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공간적 범위로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마을단위(행정리)를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농촌마을 또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행정리 범위를 기본 단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행정리가 연구자들이 개념적으로 주장한 마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깊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농촌 커뮤니티의 존재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행정리 범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경향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커뮤니티의 개념

농촌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의 기본단위가 마을이라고 한다면 마을의 기본적인 특성이 커뮤니티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관한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농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커뮤니티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행정학·사회복지학 측면과 건축 및 조경학 측면, 도시 및 지역개발학 측면, 사회학·경제학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반드시 농촌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지방자치와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하위 행정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주거공간 설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가지나

시외지역의 개발문제, 사회·경제적 구성원 형성·유지 및 제 문제에 관한 시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커뮤니티 관련 선행연구에서 커뮤니티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사용한 주요 요소들 중 지역성과 연대성 내지는 공동체성이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중 지역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연대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김기현(2003), 안영길(2005, 2006), 유승수(2007)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커뮤니티는 주민들의 지역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 반해 주민들의 창의와 요구 등 각종 권익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리적 근접성과 근거로 해서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장헌일(2004), 성우준(2005), 주정희(2004), 신성자(2002), 최병두(2006) 등이 있다. 특히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성희자·전보경(2006)은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은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공동체와 동일한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일정한 영역(지역성)에서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를 기반으로 공통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인식-공유-창출하는 유기체적 집단을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소로 연구자들이 선정한 것은 대부분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의식, 공동의 관심과 소속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지역 내 어떤 모임과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들의 활동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조직의 개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조직의 개념

조직에 관한 그간의 기본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면(강경선, 2000), 조직이란 인간의 집합체로서 특정한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며, 인간의 집단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 첫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둘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담당업무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각 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여 직위 간에 권한이양과 상호관계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직이 성립하여 존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현대 조직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Barnard에 따르면 의사전달(Communication), 공헌 의욕(Willingness to serve), 공통 목표(Common purpose) 등의 세 가지를 조직 형성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동체계가 존재하고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세 요소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성립해야 집단이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조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강경선, 2000).

이러한 조직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내부균형, 즉 공헌(Contribution)과 유인(Inducement, Incentive)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헌은 단순히 회비만을 부담하는 것에서부터 회의 출석, 노동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인의 크기에 비례한다. 유인은 조직이 개인을 끌어당기는 힘이며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비경제적 효용을 의미한다. 유인의 예로는 정신적 만족감, 금전적 이익 등이며, 물질적 유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유인에 의한 만족감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균형론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공헌과 유인의 균형에서 보면, 유인은 한편으로 협동의식의 원천이며 유인이 없는 공헌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은 항상 조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략적 요인', 즉, 개인의 참여와 공헌이 조직 지속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강경선, 2000).

5. 농촌조직의 유형구분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살펴본 농촌, 마을, 커뮤니티 그리고 조직이론을 종합해서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 커뮤니티 파악에 적합한 조직적 유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이론을 근거로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자 조직과 농촌 사회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강경선(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농촌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강경선(2000)은 농촌의 조직을 크게 동기, 성격, 기능 등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조직의 형성동기에 따라서 자생적 조직과 비자생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생적 조직이란 주민의 자발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생긴 조직이고 비자생적 조직은 외부(기관)의 영향이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생긴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이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일정한 위계질서와 명시적인 시행절차를 갖고 있는 공식적 조직과 관습에 의해 운영되는 비공식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조직 기능에 따라 구성원 간의 단합과 친교가 일차적 목적이며 활동범위도 주로 구성원간의 관계에 한정하고 있는 정의적(情誼的) 조직과 이익집단으로서 구성원의 공동 이해를 대변하며 이익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는 도구적(道具的)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조직의 성격에 따른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구분은 사실상 농촌지역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는 행정조직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의 대부분 조직이 비공식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조직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다른 요인에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 형성의

동기와 기능 등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농촌조직의 유형구분

	정의적 조직	도구적 조직
자 생 적 조직	정의적 자생조직 (계, 친목/취미/봉사단체 등)	도구적 자생조직 (각종 농민회, 출하조직)
비자생적 조직	정의적 비자생조직 (새마을 청년회/ 부녀회/ 영농회 등)	도구적 비자생조직 (각종 협동조합, 작목반, 영농조합 등)

자료 : 강경선, 농업생산자조직론 , 2000.

Ⅲ. 농촌 커뮤니티의 현황 비교

농촌지역 커뮤니티의 존재 실태와 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와 일반 관행농업 및 과수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 등 두 곳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충남 아산시 사례

1) 사례지역 현황

아산시의 총면적은 542.16㎢이며 총인구는 204,431명으로 인구밀도(명/㎢)는 377.07명이다. 이 중 송악면은 아산시의 10개면 중 가장 넓은 61.19㎢(11.3%)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는 가장 적은 3,916명(1.92%)이 거주하고 있다. 사례마을인 평촌1리는 인구 153명에 45가구가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약 3.4명이다. 총 45가구 중 농가가 35가구, 비농가가 10가구이며 농지면적은 논이 약 40ha, 밭이 약 7ha로, 가구당 약 1ha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송악면 전체는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 벼농사와 버섯재배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13개 법정리와 26개 행정리로 나뉘며 자연부락 56개가 형성되어 있다. 송악면의 평촌 1리는 400년 이상 이어온 마을로서 현재 45가구가 정착하여 살고 있고, 벼농사가 중심인 마을이다. 특히 농가 및 농경지의 약 70%가 친환경농업(친환경쌀)에 주로 전념하고 있다. 그 외에는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며 축산농가도 있고, 2개의 영농조합법인[1]이 설립되어 있다. 최근(2007년 2월)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까지의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1) 친환경겨레벌꿀영농조합법인 및 친환경송악골영농조합법인

<표 2> 아산시 지역별 인구구조

(단위 : 명, ㎢, %)

구 분	지역별 인구		
	아산시	송악면	평촌1리*
총인구(명)	204,431	3,916	153
면 적(㎢)	542.16	61.19	-
인구밀도	377.07	63.57	-
남 자	103,065	2,016	75
여 자	101,366	1,900	78
세대당 인구(명)	2.4	2.56	3.4
65세 이상 고령자	22,065	841	-

자료 : 아산시, 통계연보 2006, 평촌1리 현지 조사자료

<그림 1> 송악면 행정구역

2) 마을단위 조직 현황

(1) 도구적 조직 현황

아산시는 현재 한살림 생산자 회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

는 지역으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 총 48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단일 조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환경농업 생산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안과 아산시에 걸쳐서 생산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면을 지회로 구성하고 각 지회의 마을별로 반을 형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천안아산 지역에 총 9개 지회, 34개 반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송악면은 가장 많은 생산자 회원이 있는 중추적인 조직이며 총 13개 반이 송악면에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지역인 평촌1리도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평촌1리 반에 소속된 농가는 13농가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평촌1리의 도구적 조직은 사실상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산시 전역을 포괄하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마을 단위에서 형성·운영되고 있는 도구적 조직으로는 메주 작목반이 유일하다. 과거 20여 농가가 협력해서 메주와 장류를 생산했지만 현재는 2농가만이 매우 영세한 규모로 메주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작목반 조직이다.

평촌1리 사례지역의 마을조직의 특징은 도구적 조직으로서의 마을 단위조직은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가가 전체 마을 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행농법을 적용하는 일반농가의 경우 별도의 마을 단위 작목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2) 정의적 조직 현황

도구적 조직에 비해 마을단위 정의적 조직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수나 활동내용이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마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유지되고 있다. 마을 단위 정의적 조직은 주로 친목도모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마을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적 조직 중 가장 대표적인 비자생적 조직은 노인회이다. 노인회는 대한노인회와 연결되어 있는 전국적인 단체의 마을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마을 노인회의 상위 그룹으로 면 노인회도 형성되어 있다. 현재도 면사무소에 회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연 120만원(1분기 30만원)의 보조금이 노인회장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비자생적 정의적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마을에서의 실질적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적 조직의 대부분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정한 새마을 운동 등 일정한 행정적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그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 마을회

마을회는 마을의 각종 행사와 사업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조직으로서 마을 총회의 형태로 1년에 1회 동계를 개최하고 각종 마을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동계는 매년 12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행하며 마을총무, 부녀회장, 동계장, 각종 기술이 있는 개인들이 참여하여 준비를 한다. 동계장은 주로 마을의 연장자가 담당한다. 동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 총무(회계), 개발위원, 동계장을 선출한다 즉, 마을회는 마을단위의 회의 조직으로 여기서 면사무소에 등록하는 각종 대표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마을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이며 정월보름과 7월 칠석에 각종 민속놀이와 단합대회로 마을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조직들이 부녀회와 청년회이다. 한편, 마을회에서는 마을자금을 관리하는 데 과거에는 마을의 각종 행사를 위한 지출을 위해 가구당 약 5만원씩을 걷었고, 각종 애사시 상주들이 약 100만원씩을 기부하여 마을 자금으로 적립하며 이를 마을 총무가 관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가구당 걷는 것은 중단했고, 현재는 각종 기부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 부녀회

평촌리 부녀회의 정식명칭은 '송악면 평촌1리 부녀회'이다. 과거 새마을 부녀회로 형성된 것이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 부녀회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부녀회장이 면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월 활동비를 납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부녀회장의 이런 비용은 마을 공동경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월 회비 없이 각종 행사시 필요비용을 마을에서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즉, 부녀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을 단위 행사 등에 국한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해서 정부조직이 간섭하지 않은 자율적 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마을 부녀회는 형성과정은 비자생적이지만 실제는 자생적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청년회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청년회는 새마을 운동 당시에 형성되었던 4H 조직을 근간으로 이어져내려 오고 있다. 그러나 평촌1리 지역에서는 기존 4H 조직은 소멸하였으며 청년회는 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순수한 자생적 정의적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형성동기를 보면, 과거에는 마을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각종 경조사에 마을 일을 할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조사에 실질적인 일을 할 사람이 적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담당할 조직으로 청년회가 결성된 것이다. 약 10여 년 전에 결성되었으며 마을체육대회, 마을노래자랑 등 각종 마을행사에서 실질적인 일을 담당한다. 1가구당 1명씩만이 회원이 되고 회비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 모임에서 5만원씩 납부한다. 명절에 출향 청년의 경우도 부모가 동네에 주거할 경우 회비를 납부하고 모임에 참석한다.

라) 기타 조직

각종 친목모임이 마을 내에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연령별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노인들의 모임으로는 소위 '12인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마을의 70세 이상 노인들의 모임으로 초기 70세 이상 노인 12명이 모여서 결성했기 때문에 12인회라고 명칭이 붙여졌다. 회비를 납부하는 친목모임 정도의 활동이며 마을 행사 등과 관련된 역할은 거의 없다.

이 외에서도 각 연령별로 친목을 위한 계모임은 존재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현재 50세 전후로 약 10명의 계모임이 있고, 30대에도 계모임이 있으나 모든 연령에서 계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이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 해서 형성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순수한 친목도모의 형태이지만 실제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3) 면단위 조직 현황

평촌1리 사례의 특징은 마을 단위의 조직보다도 주로 면단위로 형성된 조직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 조직도 주로 면 단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1) 도구적 조직

가) 송악골 영농조합법인

한살림에 콩나물을 납품하는 법인체로서 아산시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의 유통사업 조직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출자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송악면의 총 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촌1리에서는 3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유곡리, 강장리, 역촌리 등에 산재해 있다. 콩나물 콩을 납품하는 농가는 총 60농가이며 자체 물량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생산자 연합회에서 면 단위 지회의 각종 운영비용을 자체 사업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즉, 기존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던 콩나물 생산 물량의 일부를 송악면 지회로 넘겨준 것이다. 판로는 한살림에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재 자체적인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보면 비자생적 도구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사업적인 면에서 성공하면서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키운다면 자생적 조직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나) 기타 조직

면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도구적 조직으로는 겨레벌꿀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아산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10농가의 조직이다. 양봉 외에 각종 유통 및 체험행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생적인 도구적 조직이다.

한편, 송악지역발전협의회가 약 10년 전에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송악지역의 각종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송악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직이다. 면사무소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사실상 비자생적 도구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의적 조직

가) 봉사조직

송악면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로 송악사랑나눔회가 활동하고 있다. 약 7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1인 최소 1구좌(5천원)를 가입하여 매월 자동이체되는 형태이다. 약 2002년경에 면사무소 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봉사단체의 사례를 보고 송악면에서도 이러한 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성된 조직이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면사무소 복지계와 협의하여 불우이웃을 선정하여 돕고 있으며, 주로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결성된 송악누리라는 모임도 있다. 약 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면단위 자선봉사 단체로서 한 달에 1회의 모임을 갖고 불우이웃의 집수리, 방충망 및 난방용 비닐 설치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회원은 대부분 송악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전후 주민이다. 송악감리교회의 일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권하면서 형성된 단체이다.

나) 생활 및 친목조직

송악면을 범위로 하는 각종 생활상의 조직 또는 친목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우선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1980년대부터 구성된 것으로 송악면 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송악면 26개 부락에서 모집하고 있으나 방범활동에 대한 면 또는 시의 지원은 전혀 없고, 각종 사고시 보상규정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목회 정도의 차원에서 꾸준히 희망자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로 간의 면식에 의해서 희망하고 활동하는 형태이다.

의용 소방대도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조직이며 현재에도 송악면 차원에서 산불진화 등의 역할을 하고 소방대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월 정기 수당과 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각종 동창모임은 연령대 별로 그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50대 정도에는

온양의 중고교를 다녔기 때문에 동창모임은 아산시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지만 40대의 경우는 송악면 중고교를 다녔기 때문에 송악면 단위에서 동창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마을에서 졸업했지만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마을차원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 선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센터장은 활동의 독립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모든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100% 면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교양강좌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서예반, 풍물반, 산악회 등의 형성되어 있다.

2. 경북 청도군 사례

1) 사례지역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은 청도군 복숭아 재배농가의 24.6%, 재배 면적의 31.7%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양읍 전체 농가의 70%정도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양읍의 대표적인 복숭아 재배지역이 눌미리이며 이 마을은 청도군의 북부에 위치하여 화양읍 유등리를 경유하는 지방도에 의해 대구광역시와 연결되고, 1998년 팔조령 터널의 개통으로 대구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지형적으로는 청도 선상지의 선단부분에 위치하여 대체로 평탄하며, 마을을 중심으로 사방이 사질양토인 들판으로 둘러져 있고 북쪽으로는 청도천에 접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106가구의 2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면에서는 남자는 127명이고 여자는 135명으로 여성이 약간 더 많다.

<표 3> 복숭아 과수원 면적의 변화추세

(단위 : 평, %)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6년
논	2,570 (56.2)	3,000 (34.6)	8,700 (39.8)	9,620 (57.5)	108,627 (89.6)
과수원	- (0.0)	3,360 (38.8)	11,180 (51.1)	7,100 (42.5)	12,351 (10.2)
임 야	2,000 (43.8)	2,300 (26.6)	2,000 (9.1)	(0.0) (0.0)	199 (0.2)
계	4,570 (100.0)	8,660 (100.0)	21,880 (100.0)	16,720 (100.0)	121,177 (100.0)

자료 : 현지 조사자료

이 지역이 복숭아 특화산지로 발달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과일의 수익성이 늘어남에 따라 논과 임야를 복숭아 과수원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전체 농경지의 50% 이상을 복숭아를 중심으로 한 과수원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수원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6년에는 과수원 면적이 전체 경지의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과수원 면적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대량 생산 중심에서 먹거리의 고급화 경향에 발맞추어 양보다는 고급품을 지향하려는 이 지역의 전략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생적 영농조직인 '눌미리 복숭아 작목회'이다.

눌미리 복숭아 작목회는 눌미리에서 복숭아재배가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1984년 처음으로 조직되어 마을의 복숭아 품질 개선과 마케팅 개선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군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1992년부터 작목반 조직 내에서는 생산과정의 기술혁신을 초월하여 공동출하를 통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3년에 '눌미리 복숭아'는 경상북도 복숭아 품질인증 제1호를 획득하였고 눌미리는 청도군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닌 복숭아 특화 재배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마을단위 도구적 조직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눌미리의 도구적 조직은 "눌미리 복숭아 작목회"만 존재하고 있다. 눌미리 복숭아 작목회는 1984년 처음으로 조직되었으며 현재 22가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눌미리 마을로 한정되고 있다. 형성 초기에는 마을주민 중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숭아 생산에 있어서의 애로점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친목단체에 가까웠다. 그러나 마을의 복숭아 품질 개선과 판로개발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1992년부터는 단순한 품질개선과 판로 확대를 넘어서서 마을단위의 공동선과 과정을 통한 공동출하를 함으로써 지역 브랜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 작목반 자체경비로 공동작업장을 신축하여, 개별 농가별로 집하된 복숭아의 선과 및 포장작업을 공동작업장에서 하여 공동출하 함으로써 상품 품질의 규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3년에는 경상북도 복숭아 품질인증 제1호를 획득하였고 1994년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정받았다. 그 후 3년 간 영농조합법인으로 독자적인 판매망의 확대 등 유통체계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영농조합 평가에서 법인자산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1998년도에는 군청의 지원으로 공동작업장을 증축하는 등 각종 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유통 및 판로개척에 있어서는 공동선과 및 출하를 통해 동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에

공동브랜드로 납품하였고, 그 외 김해유통단지, 거제유통단지, 군위군에 입지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도 공동판로를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급화와 재배농가의 감소로 동아백화점과 김해 유통센터에만 공급하고 있다.

작목회의 의사결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성문화된 작목반 규약('눌미 복숭아 작목회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구성은 회장 1인과 총무 2명, 감사2명 및 3명의 운영위원과 평회원으로 구성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평회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다른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2명의 총무에게는 각각 연간 10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임원의 수당(총무활동비)과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 견학, 기술강습회, 서적구입) 및 공동 이용사업(판매촉진 홍보, 공동작업장 운영과 보수)에 드는 비용은 회원의 가입비와 찬조금 외에 주로 백화점으로 출하시의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운영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은 백화점 납품 복숭아의 경우 박스 당 100-200원씩 징수하며, 농협공판장 출하 경우에는 전체 판매액의 1%를 수수료를 징수하여 0.2%는 농협에 귀속되고 0.8%는 눌미리 작목회의 수입으로 환수된다. 이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박스 보조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기금화하거나 각종 부자재와 비료 등의 공동구매 활동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눌미리 복숭아 작목회 조직은 구성원들간의 이익관계만을 전제로 한 완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하나의 전통적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성원의 자격이나 역할, 심지어는 목적과 운영도 매우 느슨한 커뮤니티에 기초한 내생적 조직(community-based endogenous organization)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규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혁신창출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소위 지역에 뿌리내려진(Embedness) 일종의 실행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마을단위 정의적 조직 현황

눌미리의 정의적 조직으로는 부녀회, 청년회 등 2개의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마을 자치조직으로 정월 대보름에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서 친목도모와 마을 일에 관한 회의를 하는 모임으로 동회가 있다. 이러한 생활조직 구성원은 모두 눌미리 주민으로 구성되어 각 조직의 영역적(지리적) 범위는 눌미리로 한정되어 있다. 예전에 비해서 마을 조직이 수적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들 마을 생활조직에서 파생된 별도의 조직은 없다. 이들 조직의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자

(1) 부녀회

부녀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즉, 형성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마을 주민의 자생적 조직으로 성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주로 경로잔치를 비롯한 마을 경조사를 실질적으로 준비

하고 진행하며 그 이외에 군이나 면 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마을단위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월 회비 1천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모심기 등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회비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활동면에서 보면, 마을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청년회와 큰 차이가 없으나 단지 청년회보다는 군 단위 봉사활동에 참가하거나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김장 등 마을 단위의 봉사활동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청년회

청년회는 현재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녀회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마을 자생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마을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로잔치와 친목도모 활동을 하며 복숭아 생산성 향상에 관한 회의도 주도한다.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월 1만원의 회비로 기금을 마련하고, 경로잔치, 동제 등의 마을행사의 주체로서 참가한다. 마을단위의 부부동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복숭아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 등 다각적으로 참가한다.

(3) 동회와 동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조직과 행사로서 이번 사례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마을 전체 주민이 참석하는 동회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제주로 하는 동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친목도모의 성격도 있으나 동시에 마을 전체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새로운 이장의 선출 등 마을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 행사의 참여자는 눌미리 마을 주민으로 한정하지만 만약, 출향인사도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이 후원금을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동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으나, 4년 전부터 간소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제주의 경우 1년 동안 상가에 출입을 못하였으나 지금은 동제 후 100일 동안 상가 출입을 금하는 정도로 간소화 되고 있다.

동제경비는 과거에는 동답의 소작료로 충당하였으나 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동답(1,000평)을 매각하여 수입이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 동제 경비는 가구당 일정 금액(1,500원)을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기타 조직

읍단위 혹은 군단위의 동갑계가 있다. 이들 조직은 주로 길흉사 때의 상호부조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친목을 위한 행사를 가진다. 그 외 35년 전에 청도읍과 화양읍에서 90명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결성한 ‘오성회’라는 동호인 친목모임을 결성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오토바이를 타는 동호인 모임이 아니고 단순한 친목회로 전환되었고, 회원수는 30여명이다.

Ⅳ. 사례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지리적 입지 비교

사례지역 지리적 입지면에서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농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중심도시와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는 주변지역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산시에서도 산악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이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청도군 화양읍 눌미리도 읍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입지 면에서 두 사례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평촌리는 상대적으로 평야지역인 지역에 입지한 반면 눌미리는 상대적으로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수 등의 작물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의 차이는 마을 또는 마을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면 단위 조직의 규모, 수,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평촌리 지역은 마을 단위는 아니더라도 면단위 규모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봉사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지역 행사에서도 지역 내외로부터 지원금을 유치하기 수월한 상황이다. 그러나 눌미리의 경우는 조직의 다원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하나의 작목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 인근지역과 격오지 농촌지역 간의 사회적 조직이나 제도적 능력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구적 조직 활동 비교

1) 도구적 조직활동의 공통점

두 지역 도구적 조직의 공통점은 마을 단위 도구적 조직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두 지역 모두 전통적으로 많은 마을 단위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와 수가 감소하고 있다. 평촌리는 마을 단위 도구조직이 거의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며 눌미리의 경우도 1개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및 유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 단위 경제사업의 유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커뮤니티로서의 마을은 이미 유용성이 적어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도구적 활동의 커뮤니티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구적 조직활동의 차이점

도구적 조직에서는 마을 이외의 면 또는 시군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의 활동과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평촌리의 경우는 마을 내 도구적 조직이 소멸하고 시단위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눌미리의 경우는 아직 마을단위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평촌리의 경우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아산시 전역을 포괄하고 있는 아산시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인 '아산시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와 연계를 맺고 있다. 현재 생산자 연합회가 아산과 천안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촌리 마을에서는 사실상 별도의 도구적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즉, 마을 외곽의 경제사업 조직인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내부의 경제조직 내지는 작목반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촌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작목반도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을단위의 도구적 조직은 점차 그 기능이 없어지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시단위 차원으로 그 기능이 옮겨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아산의 지리적 입지와 연관되는데, 대규모 소비지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산 및 유통보다는 대규모 생산 및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눌미리의 경우는 마을이 복숭아에 특화되면서 하나의 작목반으로 마을 주민들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촌리와는 달리 마을 작목반이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평촌리와는 다른 지리적, 제도적,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격오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단위 도구적 조직이 유용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눌미리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마을단위 도구적 조직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마을간 경제사업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경제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직면해 있지만 아직까지 마을간 협력을 위한 작목반의 통합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눌미리의 경우 마을 단위의식의 정체성 내지는 결속력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정의적 조직 활동 비교

1) 정의적 조직 활동의 공통점

두 사례지역 정의적 조직의 공통점은 마을 단위에서 주로 일상생활 및 주민간의 친목도

모를 위한 조직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부녀회, 청년회, 마을회 등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마을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적 조직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통점 중의 하나는 마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가 여전히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을단위의 정체성과 동일성이 매우 강해서 마을간 협력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간 협력은 면 또는 시군단위의 행사에 마을별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만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마을(행정리)이 기초적인 커뮤니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의적 조직 활동의 차이점

정의적 조직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규모, 활동내용, 범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평촌리의 경우 마을 내 정의적 조직은 마을의 일상적인 생활과 주민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기능에 국한되고 있지만 그 이외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 조직으로 확대되어 있다. 평촌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면단위에서 자생적인 봉사단체가 다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친목모임이 강화되어 가면서 사실상의 커뮤니티 형성의 주요요소로서 면단위 조직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눌미리 조직은 아직 정의적 조직이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전통적인 마을 행사를 주관하거나 친목도모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제의 행사 면에서도 눌미리가 정월 대보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에 비해 평촌리는 연말에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 정월 대보름과 칠월 칠석 등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의적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도 평촌리는 마을 경조사를 통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비해 눌미리의 경우는 모든 회원들이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평촌리는 눌미리에 비해 출향인들의 교류와 참여가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1.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수행한 두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

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농업활동이 중심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구의 농촌지역 경제가 상당부분 농업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촌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식량생산 중심의 기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EU, 1988) 아직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농업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촌에 관한 전통적 개념이 현실적으로도 아직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농업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중심도시 인근지역인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사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는 농촌 마을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정체성 내지는 동일성 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마을의 전통적인 행사나 각종 생활상의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마을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여행모임을 꾸리는데 있어서도 마을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행정리를 중심으로 각종 마을의 행정체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마을의 대표인 이장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를 수행하는 체계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마을 주민의 단합은 한편으로는 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광역적인 효과를 필요로 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셋째는 농촌지역의 각종 조직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농촌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 조직의 수는 사실상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사회적 생활상의 조직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다양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커뮤니티 범위와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마을 경제조직의 특징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마을 단위 경제조직의 활동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단지 두 지역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 경제조직 활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사례지역을 보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마을 주변의 경제조직 상황에 따라서 마을 내 경제조직 활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근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농업 연합체가

활동하고 있는 평촌리의 경우는 마을의 경제조직이 소멸되었고 시 단위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역적 특화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눌미리의 경우는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도 유사한 작목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통합하기보다는 마을 단위 작목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경제조직 운영단위가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 시·군 단위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마을단위 경제조직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하나의 주요 작목회가 나타나면 대부분 여기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범위만 다를 뿐 평촌리나 눌미리 모두 주민들이 일정한 경제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을단위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면서 다양한 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은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3. 마을 생활조직의 특징

마을 생활조직과 관련해서 두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정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형성된 조직들이 자율적인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별로 일률적으로 형성한 부녀회, 마을회, 청년회 등이 현재는 농촌 마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마을의 부녀회, 마을회, 청년회 대표들이 면단위 또는 시·군 단위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간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형성과정에서는 비자생적 정의적 조직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사회정치적인 변화과정에서 마을의 자율적 운영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자생적 조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들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마을 조직은 마을 행사를 주관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그 이외 친목도모 등을 위해서는 면 단위 범위로 그 범주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제 생활상에서의 모임이나 만남의 범위는 주로 면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농촌지역 일상생활의 주요 범위가 면단위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가 면 단위 커뮤니티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발견된다.

셋째로는 평촌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통합되는 단위가 면단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우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가 면 단위 범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면 단위 지역범위에서 일정한 커뮤니티의 형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면 단위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했

을 때 그 효과와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커뮤니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을을 중심으로 기초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실제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면 단위 지역범위로 그 커뮤니티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논문접수일 : 2008. 2. 13. 최종논문접수일 : 2008. 3. 21.]

참 고 문 헌

1. 강경선. 2000. 농업생산자 조직론 : 제주 감귤작목반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출판부.
2. 강구 외, 2007, 농촌마을 빈집·빈터의 입지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 농촌계획 13(1), 한국농촌계획학회.
3. 김기현. 2003.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4. 김혜민, 2006,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전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3), 한국농촌계획학회.
5. 성우준. 2005.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교회 공간 구성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6. 성희자·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7. 신성자. 2002.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8. 아산시, 2006, 아산시 통계연보, 아산시.
9. 안영길, 2005, 커뮤니티 공간 개념 도입을 통한 관광어촌 활성화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0. 안영길. 2006. 커뮤니티 공간 개념 도입을 통한 관광어촌 활성화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1. 염미경. 2007.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의 사례, 한국사회학 41(3).
12. 유승수. 2007.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13. 이재하.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14. 이형하. 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28.
15. 임강숙. 2001. 동(洞)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6. 장헌일. 2004.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17. 주정희. 2004. 해비타트마을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외부환경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8. 최근열·장영두. 2002.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9. 최병두. 2006. 살기 좋은 국토 공간 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도시문제 41(451).
20. 통계청, KOSIS,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1. 행정자치부, 2006, 행정구역실무편람,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삼영D.P.
22. 홍이식. 2004.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집합주거단지 계획요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3. European Commission, 1988, The future of rural society, European Community, Brussels.